

胸痛의 精神分析的 考察

— 두사람의 症例를 중심으로 —

李 武 石*

Psychoanalytic Observations on Chest Pain

Moo-Suk Lee, M.D.*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3(1) : 98-106, 1995 —

This study presents the cases of two patients suffering from chest pain as the chief complaint and refers to related literatures to reveal the psychoanalytic meaning of chest pain.

In the first case, the patient who was balked of the desire to be loved complained of her pain in the chest. She had been bereaved of her husband and felt deserted by someone on whom she depended, and these experiences caused the chest pain. The drive related to this chest pain in a dependent and aggressive one.

The second case, the chest pain of a 28-year-old unmarried woman, resulted from Oedipal conflict. Her Oedipal conflict did not resolve successfully for the excessive sexual stimulation in her childhood such as her experiences of witnessing the primal scenes sleeping with her parents in the same room, even under a same blanket. In addition, there were some other traumas which prevented her from that conflict : Her father bathed her until her puberty : She saw her father's back view as he urinated in a jerry : She heard her parents' frequent quarrels. This patient felt guilty about desire of Oedipal incest, and chest pain seemed to occur as a kind of self-inflicted punishment.

KEY WORDS : Chest pain · Dependent and aggressive drive · Oedipal conflict.

序 論

身體化란 본능적 욕동, 방어와 이들간의 갈등을 포함한 자극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신체 증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Moore와 Fine

1990). Ford(1983)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였고 Dunbar(1954)는 정신 에너지가 신체증상으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했다. Schur(1955)에 의하면, 身體化는 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퇴행현상이라고 한다.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Professor of Department of Psychia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Kwangju, Korea

예컨대, 유아는 고통스런 자극에 대하여 신체적반응으로 대응하지만 성숙해감에 따라서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점차 줄어들고 행동이나 사고과정으로

대치된다. 이런 발달과정을 Schur(1955)는 반응의 '脫 身體化(desomatization)'라고 불렀다. 그러나 身體化 障礙 환자들은 정신적 갈등이 일어 날때에, 발달 초기의 반응양식이었던, 신체증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身體化란 하나의 퇴행현상이며, Schur는 이런 현상을 '再 身體化(resomatization)'라 했다. 갈등의 身體化 반응중 가장 흔한 것이 痛症이다. 痛症은 어린시절의 경험에서 유래한 무의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痛症은 사랑 획득의 방법이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로 사용되기도 하고, 贖罪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痛症중에서도 胸痛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마음이 아프다'는 의미와 같이 쓰인다. 그리고 가슴은 마음을 상징하고 마음은 심장을 생각나게 하여 마음이 아픔을 심장의 痛症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이런 胸痛은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협심증과 유사하여 많은 환자들이 순환기 내과를 찾는다.

Katon(1988)등의 연구에 의하면, 胸痛을 호소하나 심혈관 조영술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心因性 胸痛 환자들은, 관상동맥 협착 환자들보다 빈맥, 호흡곤란, 어지럼증, 감각이상등 胸痛의 자율신경 증상을 더 많이 호소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우울, 불안이 더 높았고 공황장애(43%/6.5%), 주요 우울증(36%/4%)의 빈도가 더 높았으며, 공포증(36%/15%)의 빈도도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Kisely(1992)등도, 관상동맥에 이상이 없는 비특이성 痛症 환자중에서, 특이성 胸痛 환자들보다 정신과적 질환이 더 많이 발생 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만성 비특이성 胸痛을 유발시키는 어떤 원인 인자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胸痛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로는 정신분석가인 Bacon(1953)의 '心臟 疼痛에 대한 정신분석적 관찰'이 있다. 정신분석 시간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환자가 이로 인한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왼편 가슴에서 왼쪽 팔로 뻗쳐 내려가는 심장동통을 호소하는 症例들을 발표했다. 그녀는 심장동통과 관계된 욕구들로서 의존욕구와 공격욕구를 들고 있다.

저자는 胸痛의 심리적 원인인자를 보여주는 두 사람의 症例를 소개 하였다. 한 사람은 의존욕구의 좌절과 이로 인한 분노가 원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에디푸스 욕구와 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죄책감에서 유래한 胸痛이었다.

〈症例 1〉

1. 主 증상과 轉科과정

60세 부인이 胸痛, 두통, 불면증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主訴로 순환기 내과로 부터 자문의뢰 되어왔다. 이런 증상은 남편을 사별한 일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來院 약 4개월 전에 수양딸처럼 데리고 살았던 가정부가 결혼하여 떠나간 후 악화되었다. 내과에서는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위염의 진단 하에서 검사와 치료를 하였다. 혈압은 160/100mmHg에서 130/90mmHg로 조절되고 있었고, 심전도 검사, 24시간 심전도 검사(Holter monitor), 心초음파(cardiac echo), 식도 운동검사(esophageal manometry) 등의 검사는 특이한 병적 소견을 찾을 수 없었다. 말초혈구 검사(CBC), 간기능 검사, 뇨검사등의 검사실 소견도 정상범위였다. 내과에서는 혈압강하제인 Renitec과 진통제 Bufferin을 쓰고 있었다.

2. 증상 특징과 병의 과정

환자의 가슴 痛症의 양상은 특이했다. 심할 때는 하루에 10~20여차례의 痛症이 발작적으로 오는데 기간은 5~15분간 지속된다. 가슴 중앙부위로부터 등쪽으로 뻗치는 痛症으로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다. '이러다 죽는구나'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동반한다. 특이했던 것은, 이렇게 빈번하게 오던 발작이 24시간 심전도를 그리는 Holter monitor를 메자 곧 사라졌고 모니터를 메고있는 기간중에는 단 한차례도 痛症발작이 없었다. 환자는 이 사실을 신기하게 생각했고, 자신의 병이 '신경성'인 것을 확신하게 됐노라고 했다.

이 痛症은 이별(seperation)이나 상실(loss of loved object)과 관계가 있었다. 최초의 가슴 痛症은 8년전에 발생했었다. 그때는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그의 병 간호 중에 발작이 엄습했었다. 그당시에도 'J' 대학병원 내과에서 EKG등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 남편은 7년간의 투병끝에 일년전 사망했다. 사망 당시 남편의 병은 많이 좋아진 상태였고 담당 의사가 '검사결과가 좋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의학적 검사에 대한 불

신을 갖게 되었고, 검사상에는 정상으로 나와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증을 갖게 되었다. 남편 사망후 환자는 100일 정도를 잠만 잤다. 의존대상의 상실감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였다. 그후 활동을 시작 하자 곧 胸痛이 발생하였다. 환자를 극진히 보살피 주던 가정부가 내원 4개월전에 결혼때문에 떠나겠다고 하자, 非理性的인 줄 알지만, 슬프고 배신감이 느껴지면서 胸痛이 심해졌다.

정신과로 전과된 후, MMPI검사상 우울증의 형태를 보였다. 정신치료와 항우울제, 항불안 약물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胸痛의 빈도와 강도도 현격히 감소하여 퇴원했다. 퇴원후 외래 통원치료를 하였다.

퇴원후 일개월 만에 痛症이 다시 왔다. 이때는 딸이 결혼하여 미국으로 떠나가버린 직후였다. 그후 2개월 후에는 미국여행중 痛症발작이 있었다. 그후에도 캐나다 여행, 미국여행중에도 痛症발작이 있었다. 환자는 “외국에만 나가면 아파요”라고 하였고, 고국과의 분리(separation from the motherland)에서 오는 痛症으로 보였다. 그해 4월 어느날에는 내 진료실로 오는 도중 승강기 고장으로 갇히게 되었는데 당황되고 화가 났으며, 그때 Elevator 속에서 痛症발작이 왔다. 남편의 기일이 4월중에 있기도 했다. 3개월 후에 또 다시 痛症발작이 왔다. 이때는 장녀의 결혼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큰 애가 제 곁을 떠난다 생각하면 허탈감이 들어요” 그 5개월후에는 작은 아들을 결혼시킨 후에 痛症발작이 왔다. 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중에도 痛症발작이 왔다.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을 훔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다음해 4월, 남편의忌日 무렵부터 며칠간 다시 痛症발작이 있었다. 그일이 있고 9개월후, 장남 定婚하고 痛症발작이 자주왔다. 특히 자녀들이 환자의 집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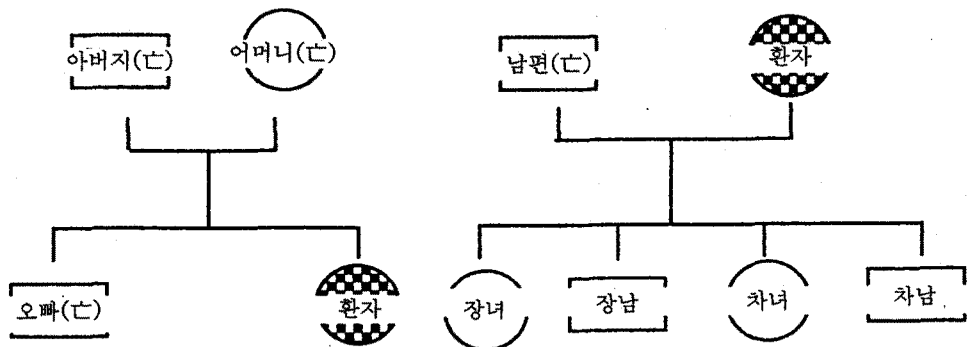
했다가 모두 떠나고 난 뒤에 발작이 심하게 온다. 그후 2개월 후에, 아들의 결혼식 날 아침에 온몸에 진땀이 흐르고 반쯤 의식상실이 되었으나, 가슴 痛症은 없었다. 아들이 남편으로 생각되고, ‘이제 아들을 보내고 나면 나는 껌데기만 남는구나’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60이라는 나이와 자존심 때문에 환자는 섭섭한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너그럽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염려하며 보살피는 지를 보여주고 싶어했다.

3. 과거력과 가족력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다.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굉장한 미인이셨고 남성처럼 스케일이 크시고 인자하신 분이였다. 어머니 나이 36살에 낳은 고명딸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도 어머니의 팔배개를 베고 품속에서 잘 정도로 과잉보호를 받고 자랐다. 환자가 청소년기인 15살 때 어머니는 고혈압으로 쓰러지셨고 3년간 투병하시다가 환자가 18살 때 돌아가셨다. 7살 연상의 오빠와 외가의 도움으로 슬픔을 이겨냈고, 26살에 3년 연상인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남자답고 자상하신 분으로 환자는 의사에게 말할 때 남편의 호칭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좋은 아버지처럼, 환자의 의존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분이였다. 40년의 부부생활중 남편은 환자를 딸처럼 “너”라고 불렀고, 환자는 “집안 살림이 어디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보호받으며 살았다.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모녀관계 같아서 남편이 출장가면 媵母님 방으로 가서 같이 자곤 할 정도로 다정하였다고 반복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생애중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까운 분들의 죽음(3살때 아버지, 18살에 어머니, 오빠)을 당했었다.



환자의 성격은 명랑하고 부침성이 좋으며, 감정적이며 극적인 성격의 일면을 보였으며, 관심을 자신에게만 모으려 하고 의존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4. 진단

Axis I : 心因性 痛症障碍 Somatoform pain disorder

II : 히스테리 성격 Hysterical personality

III : 본태성 고혈압 Essential hypertension

IV : 남편과의 사별, 가정부와의 이별

5. 精神力動的 解析 psychodynamic formulation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남성의이고 지배적인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환자는 대상상실의 불안을 못견디는 의존적인 성격이 되었다. 의존대상은 어머니에서 오빠와 이모, 그리고 남편으로 옮겨갔으며, 남편 상실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 시작되었다. 의존대상은 남편 사망후 가정부에게로 옮겨갔으나 그녀마저 결혼으로 떠나버리자 胸痛발작이 악화되었다. 의존대상의 상실은 참을수 없는 분노를 유발했고 이 분노가 胸痛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生涯중 반복되는, 사랑하는 이들의 갑작스런 죽음의 경험, 이별불안을 가중 시켰고, 환자로 하여금 '나도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인자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가슴의 痛症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남편의 증상을 동일화한 것으로 보였다.

6. 치료과정

지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하였다. 약물은 fluoxetine 20mg과 alprazolam 1.0mg을 하루 용량으로 사용했다. 경과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현재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있다. 치료자를 이상화하고 있지만 지나친 의존은 안보인다. 요즈음은 한-두달에 한번정도 필요에 따라 찾아오고 있다. 약물은 규칙적으로 먹지는 않고 아직은 지니고 다닌다고 했다.

<症例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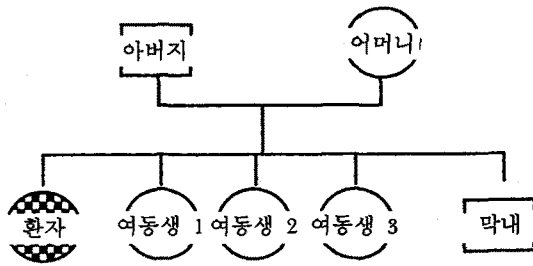
1. 주 증상

25세의 여사원이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하며, 소리에 대한 과민반응과 가슴의 痛症을 주소로 정신과를 찾아왔다. 痛症의 양상은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것 처럼 격렬한 痛症을 느낄때가 있고, 무지근하게 지속되는

痛症도 있다. 痛症은 좌측이 아닌 우측 가슴에서 느껴진다. 이 痛症이 올때는 머리가 혼란해지고 피곤하고 지쳐버리고 살 의욕이 없어질 정도로 우울해진다. 잠을 자고 나면 사라진다. 性的인 환상에 차라리 빠져버리면 胸痛이 없어지지만, 性的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을 때 痛症이 다시 나타난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痛症이 온다. 내과적인 검사상 이상이 없었다.

2. 증상의 시작과 경과

가슴의 痛症은 고등학교 2학년때 처음 느꼈다. 교련 시간에 선생님이 '性交란 남성성기가 질에 삽입되는 것'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그후 어느날 교실의 창가에서 있다가, 갑자기 한가지 수척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가 국민학교 저학년때, 그녀의 가족이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댁 젊은 부부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잠결에 자신의 질에 무언가 밀착되어 오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잠을 깼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바지가 벗겨진 것도 아니고 痛症도 없었다. 그 순간 '아빠가?' 하는 생각에 상대방의 머리를 만져보았는데, 아빠는 아니고 낯선 사람이어서 그냥 돌아누워서 자버렸다고 기억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얼굴이 달아 오르고 손에 땀이 흘렀다. 이때 부터는 '순결'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남성의 이름만 들어도 안절부절을 못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성 경험이 있는 여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다리 가랭이 부분(성기부분)을 보는 순간, 그 부분이 까맣게 보이면서 지르는 듯한 痛症을 가슴에서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중학생 때 어머니가 어떤 부인의 흉을 보면서 '그 여자는 남의 가랭이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야'하고 흉 보았던 기억과 관련이 있었다. 그말을 들으면서 그녀도 '나도 커서 남의 가랭이만 보고다니는 저런 사람이 되면 어찌나'하고 걱정했었다. 그후 사람을 마주 볼수 없게 되었고, 상대방의 가랭이 부분이 유난히 눈에 들어 오고 그때마다 가슴에 痛症이 왔다. 이 痛症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도 계속 되었다. 부모의 부부 싸움이 심할 때 痛症이 왔고, 상대방의 가랭이 부분을 의식하고 회피하려 하면 痛症이 왔다. 차라리 그 부분을 피하지 않고 직시할때 痛症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다.



3. 가족력

어머니는 계산적이고 차거운 분이다. 어머니 자신이 어린 시절에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했다. 환자는 자기속에 자기를 괴롭히는 엄마의 그림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울었다. 어머니는 항상 공부를 강요했고 환자는 노심초사 어머니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학교성적은 항상 뛰어났다. 순종적이었던 환자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직업을 갖게 되자 利己的이고 지배적인 어머니에 대한 주체할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환자는 피로워 했다. 환자가 어릴때 어머니는 연탄을 절약하게 위해서 겨울에는 온 식구가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게 하여 性的 갈등을 느끼게 했는데, 이것도 어머니가 미운 이유 중 하나였다.

아버지는 무능하고 어머니에게 무시당하는 분이였다. 性的으로도 어머니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환자는 부모의 침실 대화에서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두분은 항상 싸운다. 싸울 때 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다. 어머니는 어린 환자에게 아버지의 욕을 늘어놓고 자신의 불행을 한탄했다. 환자는 어머니를 때린 아버지를 증오했다. 그러나 어릴때 환자가 울면 위로해 주시는 분은 어머니가 아니었고 아버지였다고 한다. 자란후에 생각해 보니 아버지 만한 신랄감도 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아버지에 대한 환자의 감정은 좋았다.

가정 분위기는 차갑고 경쟁적이며 숨막히는 긴장이 흐르는 것이었다.

환자의 성격은 완벽주의적이고, 순종적이며, 보수적인 면을 많이 보였고, 분노를 수동공격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었다.

4. 진 단

Axis I : 心因性 痛症障碍

II : 강박성격

III 비 특이적

IV 비 특이적

5. 精神力動的 分析(psychodynamic formulation)

환자의 胸痛은 에디푸스 갈등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근친상간적 성 욕구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죄책감을 일으켰고 이에대한 처벌로서 胸痛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정신치료 과정에서 이런 숨겨진 정신 역동이 나타났다.

6. 정신치료 과정

週 2회의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하였으며, 카우취를 사용하였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性에 대한 갈등이 심했다. 예컨대, 고등학교 3학년 때 의사의 진찰을 진찰대에 누워서 받게 되었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며 심한 구토증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것을 性的 자극 때문이었다고 했다. 몸매가 잘 생긴 남자를 보면 그를 강간하는 상상을 하며 몸에서 그런 느낌을 느끼지만 실 생활에서는 남성들의 접근을 불허하고 中性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同性同本の 남성이나,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할 못했다. 즉 남성과의 교제는, 性的으로 접근할수 없는 안전장치가 있는 남성들로 제한 되어 있었다.

이런 性的 갈등은 어릴때 경험한 과도한 性的 자극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국민학교 저학년때의 그 경험외에도, 그녀가 고등학교 때까지 겨울에는 부모님과 같은 방, 때로는 한 이불에서 잤는데 부모님의 성교시 번번히 깨어나서 흥분과 두려움으로 괴로워 하며 잠을 청했다고 하였다. 다른 방을 쓰게 되었을 때는 부모님의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부모님의 방에 불이 꺼지면 이유 모르게 불안해져서 공부를 할수 없었다. 그녀의 증상중 하나인 '소리에 대한 과민성'은 부모 성교장면 목격(primal scene)의 경험과 관계가 있었다. 또한 그녀는 선을 보고 남자가 마음에 들면 한가지 환타지때문에 괴로워 하는데, 어머니, 여동생들이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환타지였다. 이것은 부모가 성교를 하고 있을 때 환타지 속에서 어머니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여동생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유했던 경험으로 무의식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였다. 선 본 남성을 어머니나 동생들과 공유하는 환타지는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보였다.

아버지는 그녀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까지 목욕을

시켜주었는데 이것도 과도한 성 자극이 되었다. 어느날 아버지가 그녀를 씻겨주면서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를 듣고 그녀는 놀라서 온몸이 얼어 붙은듯이 굳어져 버렸다고 한다. 부모가 성교할때의 숨소리가 생각났던 것 같다고 하였다. 그뒤로 아버지가 그녀를 목욕 시키는 일은 멈추었다.

그녀가 받은 또 다른 성 자극은, 겨울이면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방에서 요강에 소변을 보시는 것이었다. 어린 그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性器를 상상하고 흥분했었다고 한다. 국민학생때는 이웃집에 놀러가서 버게를 보고 주인 부부의 성관계를 상상한 기억도 있었다. 엄마·아빠의 더러워진 팬티를 볼때도 성관계를 상상했다. 이런 과도한 성자극과 부모의 갈등이 그녀의 에디푸스 갈등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에디푸스 갈등을 보여 주는 꿈 중의 하나를 소개하겠다.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계신다. 벗고 있는 뒷모습이 미스터 코리아처럼 우람한 체구를 하고 있다. 동생들이 아버지에게 가려고 해서 내가 못가게 막았다. 다음 장면은 내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고 있다. 어머니처럼 나도 윗옷을 벗고 있었다.

꿈에 대한 그녀의 연상은, 그녀의 아버지는 배가 나오고 키가 작고 뚱뚱한데 꿈속에서는, 체구가 우람하고 멋 있었다는 것이 이상했고, 자기는 한번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처럼 윗옷을 벗고 있는 것은 어머니와의 동일화로 생각되었고, 어릴때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방에서 요강에 소변 보던)이 꿈속에서 美化된 뒷모습으로 재현된 것으로 보이며, 性的으로 아버지를 독점하고자 하는 에디푸스 소망이 표현된 꿈으로 해석되었다.

치료가 中期에 접어들었을 때에, 치료시간에 그녀는 아버지의 성기를 자신의 질 안에 넣고 장난하는 환타지를 말했다. 근친상간적인 욕구가 의식표면에까지 올라가 있었다. 이무렵 異性에게 최초로 입맞춤을 허용했다. 입맞춤으로 性的 흥분을 경험하고 몹시 당황했다. 이 사건은 남자가 장래성이 안보여서 헤어지기로 작정한 후에 일어났다. 헤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허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헤어진후

어느날 새벽에 이 남자의 성기가 자신의 질속으로 들어오는 공상을 하는데, 남자의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이 겹쳤다. 급히 상상을 멈춰버렸다. 에디푸스 갈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환타지였다. 이런 환타지와 관련하여 갈등들이 해석 되었다.

정신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가슴의 痛症이 性的 욕구와 관련되어 일어나고 있음을 치료시간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료중에 性的 轉移(erotical transference)가 생겼을 때 카우취에서 胸痛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이 무렵에 가져온 꿈에 번쩍이고 뾰죽한 것이 그녀의 질속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때 동시에 가슴에서도 찢리는 痛症을 느꼈다고 했다. 이 꿈에 대한 그녀의 연상은, 갇힌 여인에게 빛이 들어와서 잉태하게 되고 왕자를 낳은 ‘헤모스’ 신화가 생각난다고 하였다. 치료자의 아이를 잉태하고 싶어 하는 性的 轉移가 해석되었다.

치료 2년째에 가슴의 痛症이 단순한 痛症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痛症과 性的 쾌감이 섞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胸痛과 더불어 성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성 흥분을 두려움 없이 받아 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痛症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었고,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痛症에 대한 공포증이 사라졌다. 痛症을 관찰할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性에대한 갈등도 감소했다. 異성과 교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환자에게는 약을 쓰지 않았다.

討 論

痛症은 조직의 손상시에 느끼는 불쾌한 경험을 말하며, 상처에 대한 주관적 감각, 조직 손상에 대한 신호 자극, 손상으로부터 개체를 보호하려는 조작 반응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痛症은 감정 경험을 표현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네 말이 날 아프게 하는구나”라든지, “어머니가 돌아 가셔서 그녀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들은 痛症이란 용어를 심리적인 아픔의 표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즉 넓은 의미에서 痛症의 개념은 조직의 손상과는 무관한 것이다. 모든 痛症은 주관적인 경험이고 이 경험을 질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痛症경험은 기억 되어 있다가 감각경험으로 회상되거나, 감정경험으로 재생 되기도 한다. 心因性 痛症은 감정의 직접적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과 과거에 심한

痛症을 경험했던 사람들에서 많고, 특히 성격 특성이 자학적인 사람들이 痛症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rskey와 Spear, 1967).

痛症의 원인에 대한 정신역동학적 설명중 대표적인 것은 Engel(1959)과 Pilowsky(1978)의 것이다. 그들은 痛症의 정신역동학적 근원을 아가가 유아기에 부모에게서 받았던 만족감에서 찾고 있다. 즉 아가의 배고픔이나 젖은 기저귀의 불편감을 심리적 痛症의 근원으로 보았다. 이때 아가가 울면 어머니는 즉각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쓰다듬어 주고 사랑해 준다. 그래서 아가는 고통의 해결을 경험한다. 아이가 좀 더 자란 뒤에는, 뽀박질을 하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간다. 엄마는 “아픈 자리에 입을 맞춰 주고 치료해 준다” 이런 어린시절의 경험은 고통 뒤에는 곧 사랑과 보살핌이 온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는 부모님이 관심을 갖어 준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터득하게 되어, 성장후에 인생의 고통에 직면 했을 때 痛症을 만들어 냄으로써 고통의 해결사를 불러 들인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症例 1의 부인 환자는 남편의 사별이나 사랑하는 대상들의 상실 위험에 직면 했을 때마다 그들의 사랑을 부르듯이 흉통 발작이 있었다. 症例 2의 환자 역시 자신의 痛症을 이해해 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이 분노는 어머니처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다른 동료를 향해 터져 나가고 있다.

痛症의 또다른 정신역동학적 원인은 처벌적인 초자아다. 부모가 혹독한 매질을 많이 하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많이 심어 주면 아이는 성장후에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죄에 대한 벌을 기대하게 되다. 이 벌이 痛症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경우는, 부모가 이성을 잃고 아이를 매질한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자식의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선물을 주기도하고 안아 준다. 이 경험은 아이의 무의식에 한가지 등식을 만들게 되는데, 痛症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보상을 가져 오고, 痛症을 참으면 원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형성된다(Ford 1983). 본 논문에서 症例 2의 환자는 강박적인 성격으로서 도덕적이며 비교적 비대한 초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반장으로서 칭찬을 받는 모범

학생이었고 부모에게는 순종적인 착한 딸이었다. 이런 성격의 환자가 에디푸스 상황에 노출되어 아버지에게 대한 욕구와 어머니에 대한 질투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녀가 느낄 죄책감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한 그녀의 가정은 처벌이 많은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부부싸움할 때 마다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는 자식들 위에 군림하는 여왕이었다. 症例 2의 환자는 죄책감에 대한 처벌로는 胸痛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죄책감과 처벌에대한 욕구가 痛症을 초래한다. “痛症을 잘 느끼는 사람(pain-prone person)”은 무의식적으로 결정된 痛症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痛症을 실제 또는 환상적인 죄책감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결정된 처벌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들은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Engel 1959). 본 연구에서 症例 1의 부인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곁을 떠날 때마다 胸痛 발작이 왔다. 실제로 그녀를 떠났던 가정부가 돌아와 그녀의 병 간호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수단으로 痛症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Kellner(1990)는 신체화의 적개심(Hostility)의 관계를 연구 하였다. 적개심과 분노, 특히 억압된 적개심이 身體化의 중요한 인자라고 하였다. 신체증상과 적개심과의 관계에 대한 실험적 임상연구에서, 분노를 갖지 않는 우울증 환자들에 비해 화가 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우울증 여인들이 신체 증상을 갖는 경향이 높았다. 분노를 감추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다른 痛症 환자들에 비하여, 극심한 痛症을 갖는 빈도가 높았다(Pilowsky와 Spence 1976). 적개심은 심혈관에 작용하여 적개심과 동반된 여러가지 생리적 변화와 이에 따른 신체증상을 초래한다(Grings와 Dawson 1978, Williams등 1982). 이 신체증상 중 하나가 胸痛이다. 적개심이나 분노와 身體化의 관계에 대한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Kellner(1990)는 분노가 身體化의 주된 원인은 아니며 다만 억눌린 분노가 소수에서 신체적 증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신분석가인 Bacon(1953)은 ‘心臟疼痛에 대한 정신분석적 관찰’에서 정신분석 시간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환자가 이로 인한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왼편 가슴에서 왼쪽 팔로 뻗쳐 내려가는 심장동통을 호소하는 症例들을 발표했다. 그녀는 심

장동통과 관계된 욕구들이 의존욕구와 공격욕구라고 하였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症例를 소개하고 있다.

한 남자 환자가 도움을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미움에 대한 분석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자동차를 사 주시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심장동통이 일어났다. 심장동통은 공복감과 동시에 느껴졌다.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동생처럼 그도 아버지에게 차를 선물로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차를 사주었기 때문에 심한 질투(oral envy)와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이 症例는 사랑 받고 싶은 의존 욕구의 좌절로 인한 분노가 胸痛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본 논문의 症例 1의 부인 환자에게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의존대상이었던 남편이 사망했을 때 胸痛이 왔고 또한 딸처럼 데리고 살았던 가정부가 그녀를 두고 시집을 갖게 되었을 때도 胸痛이 왔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였다.

胸痛은 다른 身體化 증상과 같이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며 방어 및 갈등해소의 수단으로 이용된다(Kellner 1990). Steckel(1943)은 身體化에 대한 그의 최초의 논문에서 身體化는 종종 상징적 의미를 갖는 자기표현의 방법이다. "Organ of speech of the mind" 症例 1의 부인과 症例 2의 여사원의 신체기관인 '가슴이 아프다'는 호소는 '마음이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身體化는 부정, 전치 또는 합리화의 방법과 같은 방어기전으로서 표현된다. 예컨대, 症例 2의 환자는 근친상간적인 성욕구를 가진 자신을 신체증상인 胸痛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症例 1과 2에서 胸痛은 갈등해소의 시도로 보였다. 예컨대, 환자들은 견딜 수 없는 분노나 이별불안, 그리고 性的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胸痛이라는 신체감각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들은 alexithymia는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과 신체증상을 잘 구별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문체가 내면생활에서 유래한 것을 알고 있었다.

진단상의 문제인 공황장애와의 감별진단은 본 논문의 목적이 진단의 규명이 아니고 증상의 아래 숨은 심리적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다루지 않았다. 흉통환자의 62%가 공황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보고도 있지만(Chignon 등 1993), 본 증례의 환자들은 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주증상이었고, 뚜렷한 심리적 갈등이 원인이었고 기질적병리가 증명되지 않은 점등 心因性 痛症障碍의 기준에 더 맞았다.

結 論

저자는 胸痛을 주소로 하는 두 사람의 症例를 중심으로 胸痛의 정신분석학적 의미를 조사하였다. 症例 1의 환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환자가 이로 인한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심장 동통을 호소하는 症例이었다. 이 환자의 심장동통과 관계된 욕구는 의존욕구와 공격욕구였다.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男性的이고 지배적인 어머니의 과잉보호속에서 자란 환자는 대상상실의 불안을 못견디는 의존적인 성격이 되었다. 의존대상은 어머니에서 오빠와 이모, 그리고 남편으로 옮겨갔으며, 남편 상실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 시작되었다. 의존대상은 남편 사망후 가정부에게로 옮겨갔으나 그녀마저 결혼으로 떠나버리자 胸痛발작이 악화되었다. 의존대상의 상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했고 이 분노가 胸痛을 일으켰다.生涯중 반복되는, 사랑하는 이들의 갑작스런 죽음의 경험이, 이별불안을 가장 시켰고, 환자로 하여금 '나도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인자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였다. 가슴의 통증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남편의 증상을 동일화한 것으로 보였다.

症例 2의 환자는 28세의 처녀로서, 그녀의 胸痛은 에디푸스 갈등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이런 性的 갈등은 어릴때 경험한 과도한 性的 자극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국민학교 저학년때의 성 경험과 부모님과 같은 방, 때로는 한 이불에서 잠을 자면서 경험한 primal scene의 경험이 에디푸스 갈등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춘기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준 것이나 방안에서 요강에 소변 보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싸우시는 것 등이 갈등의 자연스러운 해결을 방해 했다. 에디푸스적 근친상간 욕망이 죄책감을 일으켰고, 이에대한 처벌로서 胸痛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중심 단어 : 흥동 · 의존욕구 · 분노 · 에디푸스 콤플렉스.

REFERENCES

- Bacon, C(1953) : Psychoanalytic observations on cardiac pain. *Psychoanal Q* 23 : 7-19
- Cannon RO 3rd(1988) : Causes of chest pain in patients with normal coronary angiograms : The eye of beholder. *Am J Cardiol* 62 : 306-308
- Chignon JM, Lepine JP and Ades J(1993) : Panic disorder in cardiac patients. *Am J Psychiatry* 150 : 780-785
- Coryell W, Noyes R, Clancy J(1982) : Excessive mortality in panic disorder : A comparison with primary unipolar depression. *Arch Gen Colombia University Press*
- Dunbar F(1954) : *Emotions and Bodily Functions*.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 Engel GL(1959 a) : "Psychogenic" pain and the pain-prone patient. *Am J Med* 36 : 899-918
- Engel GL(1967 b) : Psychoanalytic theory of somatic disorder. *J Amer Psychoanal Assn* 15 : 344-365
- Ford CV(1983) : *The somatizing disorders : illness as a way of life*. Oxford, Elsevier Bionmedical, 98-102
- Grings WW, Dowson ME(1978) : *Emotions and bodily responses : A psychophysiological approach*. New York Academic
- Katon, Wayne, Hall ML, Laurence JR, Hollifield CM, Vitaliano PP, Beitman BD(1988) : Chest Pain : Relationship of Psychiatric Illness to Coronary Arteriographic Results. *Am J Med* 84 : 1-9
- Kellner R(1990) : Somatization, theories and research. *J Nerv Ment Dis* 178 : 150-159
- Kinsley SR, Greed FH and Cotter L(1922) : The course of psychiatric disorder associated with non-specific chest pain. *J Psychosom Res* 36 : 329-335
- Merskey H and Spear FG(1967) : The concept to pain. *J Psychosom Res* 11 : 59-67
- Moore BE and Fine BD(1990) : *Psychoanalytic Terms & Concepts*. New Haven and London.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and Yale University Press, 183
- Plowsky I, Spence ND(1976) : Pain, anger and illness behavior. *J Psychosom Res* 20 : 411-416
- Pilowsky I(1978) : Psychodynamic aspects of the pain experience. In the psychology of pain. Sternbach, RA ed. New York, Raven Press.
- Shur M(1955) : Comments on the metapsychology of somatization. *Psychoan Study Child*. 10 : 119-164
- Steckel W(1943) :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New York. Liverlight, Cited from Kellner, Robert(1990) : Somatization, theories and research. *J Nerv Ment dis* 178 : 150-159
- Williams JRP, Barefoot JC, Shekelle RB(1985) : Health consequences of hostility. In MA Chestney, R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Washington DC. Hemisphere, 173-185